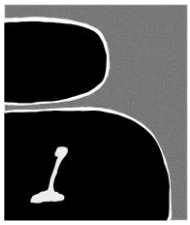
믿 음
지 혜
실 천

BUDDHANARA

붓 다 나 라 템플

FAITH
WISDOM
ACTION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첫째주 일요일 11 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 시

☸ **Youth Dharma Summer Camp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

기간: 2015 년 6 월 13 일부터 7 월 25 일까지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 까지
대상: 6 학년 – 12 학년 장소: 애틀랜타 붓다나라 사찰

☸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붓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Buddhanara Temple in St. Louis	Buddhanara Temple in Atlanta
☺ **Every Sate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Every Tuesday 6:30 p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Intensive Meditation 7:00 PM – 10:00 PM: Fourth Tuesday of the Month**	☺ **Every Tuesday 6:00 pm -TBA Meditation for the Beginner**

이달의 법구경

노여움을 버려라.
자존심을 버려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아무것에도 구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겐
슬픔이 다가올 수 없네.

Forsake anger, give up pride.
Sorrow cannot touch the man who is not in the bondage of anything, who owns nothing.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붓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을미년 하안거 결제법어

나고 죽는 인간(人間)의 일은 일정치 않네
입속의 세치 혀의 기운을 토하다가
산모퉁이에 한 줌의 흙으로 보탤 뿐

인생백년(人生百年)이라야 그저 잠깐인 것을, 해는 동쪽에서 떠오르고 서쪽에서 잠긴다. 그럭저럭 세월은 흘러 죽음에 다다르게 되누나. 금생(今生)에 잘못되면 헤어나기 어려우리. 방일과 허풍(虛風)으로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면 허둥지둥 황당하기 그지없으리. 시끄러운 인연(因緣)속에서 잘못된 업식으로 살림살이를 살았으니 윤회의 길은 멀고 아득하여라. 남의 빚을 지면 살아서건 죽어서건 원래 갚지 않을 수 없으리. 또한 생떼와 강제, 위선과 사기로 털어먹은 온갖 부채는 누구를 시켜 대신 할 수도 없으며, 온갖 탐욕과 교활함으로 치달리며 지은 죄업은 고스란히 본인(本人)의 몫이니 그 아득하고 긴 윤회의 길 더욱 두려워라.
기어코 윤회의 길을 벗어나려면 다른 방법이 없나니 조사들의 공안(公案)을 참구하여라.
공안(公案)을 참구하여 조사관(祖師關)이 타파(打破)되면 인생(人生)의 근본문제(根本問題)를 영원히 해결할 뿐 만 아니라 다겁생래(多劫生來)에 죄업(罪業)을 일시(一時)에 소멸(消滅)하여 영원(永遠)히 생사(生死)없는 무상도(無上道)에서 자유(自由)하리라.

頓捨諸緣徹底空　　모든 인연 다 놓고 철저히 비워서
經行座臥起疑團　　오직 경행과 좌와에 화두만 들어라
不覺全身都放下　　나도 모르게 온몸을 다 놔버리면
大千沙界現全身　　대천세계에 법의 몸이 드러나리라

德崇叢林 方丈 雪靖

불교계 네팔 구호기금 봇물…
전국 사찰 어린이들까지 나서 한 달 만에 10 억 모금 '성과'

네팔 지진 참사 한달여가 지났지만 네팔을 돕기 위한 불교계 구호의 온정이 여전히 뜨겁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을 돕기 위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성원이 봇물처럼 밀려들고 있다. 6 월 2 일 군종특별교구가 3900 만원을, 봉녕사 1400 만원, 장경사 1000 만원, 국제선센터 1000 만원, 도선사가 3000 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하며 모금된 기금이 10 억여원을 넘어섰다.현재(6 월 2 일 기준)까지 집계된 것만해도 전국 사찰 200 여곳과 20 여 단체들이 참여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지난 2010 년 아이티 지진 피해 돕기 성금이 10 억원을 돌파한 시기는 모금 시작 3 달이 지나서다.
박찬정 아름다운동행 사무국장은 "모금 시작 한달 만에 10 억원이라는 큰 기금이 모인 것에 놀랐다"며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과의 각별한 인연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전국 각지 사찰과 불자들의 성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홍법문화재단과 영축총림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와 여래사의 1 억원 기부로 시작된 모금 운동은 어린이와 노스님에 이르기까지, 종단도 불문하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5 월 22 일 서울 안암어린이집 원생 40 여명은 아름다운동행에 네팔 긴급구호기금 58 만 4050 원을 전달했다.
안암어린이집이 지난 5 월 22 일 아름다운동행에 네팔지진 긴급구호기금 58 만 4050 원을 전달했다.지난 1 일에는 BTN 불교 TV 가 태고종을 비롯해 각 종단과 전국 사찰 및 불자들이 모은 1 억 7000 여만원과 불국사 자원봉사단이 후원한 1 억 3000 여만원으로 마련된 구호기금 3 억여원을 쾌척했다.
잇따른 후원의 손길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정성들여 애써 모아준 기금들을 의미있게 쓰기 위해 아름다운동행과 고민중에 있다"며 "지진 피해를 입은 학교나 사원 등의 재건과 복구를 위한 지원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팔 피해 복구를 위한 불교계 구호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실천적 불교를 지향하는 스님들의 모임 향수해(香水海)는 지난 1 일 네팔로 출국해 7 박 8 일 동안 카트만두 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가스님을 비롯해 '달리는 스님'으로 유명한 진오스님, 짜장 스님으로 알려진 운천스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단법인 착한벗들 이사장 회일스님 등 네팔을 돕기 위해 뜻은 모은 스님과 봉사단 15 명은 카트만두와 인근 지진 피해 지역을 찾아 짜장면과 카레밥 등의 식사를 제공하는 한편 텐트와 의약품 등의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지진으로 인해 좌절감을 겪고 있을 이재민들을 위한 힐링 법회도 함께 진행하며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국제개발구호단체 더프라미스 또한 지난 1 일 2 차 구호활동에 들어갔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단체 지구촌공생회 네팔지부는 지진 피해 발생 이후부터 네팔 현지에서 지속적인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불교신문 3110 호/2015 년 6 월 6 일자]

미국 붓다나라 템플에서도 네팔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으로 기탁됩니다. 많은 동참기다립니다.
문의 사항은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314)993-0185; 애틀랜타 붓다나라 (770)945-5345

동물의 먹잇감에서 신으로 진화한 인간 : 인간이란 무엇인가?

김대식 KAIST 교수·뇌 과학자

동물의 먹잇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 영장류들로부터 분리된 **'Homo'** 속의 종들 중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우리 인간들. 꼿꼿한 허리 덕분에 걸어다닐 수 있고, 월등하게 큰 두뇌 덕분에 현실을 인식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뒷다리만을 이용해 오랜 시간을 걸어다닐 수 있어 손으로 물체를 잡고 도구들 사용한다.
동아프리카를 고향으로 둔 인간은 남극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대륙을 정복했으며, 현재 약 **72** 억 명이 살고 있다. 점점 더 커지는 두뇌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여자의 골반은 커졌고, 뇌는 피질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 호두같이 접히고 구부러진 표면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그나마도 한없이 커지는 두뇌의 크기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인간은 어느 동물보다 더 일찍 태어난다. 말·소·사슴. 모두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스스로 어미를 쫓아가지만, 인간은 **1** 년이 지나서야 첫걸음을 걷는다. 그것도 너무나 어설프게 말이다. 그렇다. 진화적으로 우리는 모두 미숙아인 것이다.
마치 바둑판같이 계획된 대한민국 신도시에서 태어나 아침드라마를 보는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자란다면 그 **1** 년이 문제될 리 없다. 하지만 아프리카 초원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해 보자. 태어나서 **1** 년 넘게 엄마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 원시인의 두개골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두 개의 구멍들. 검지호랑이의 이빨이 정확히 맞아 들어간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무시무시한 육식동물들에겐 간편한 먹잇감이었던 것이다.

가족의 탄생:
더 이상 배고픈 동물의 야식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많이 모이면 된다. 먼 훗날 그리스 철학자 파르메니데스는 '하나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만,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와 여러 개'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문제였다. 혼자서는 죽지만, 많으면 살아남는다. 하지만 많이 모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그 많은 사람들 중 누구를 믿어도 될까. 나와 비슷한 유전을 공유하는 가족과 친척들 위주 공동체의 탄생이었다. 진화의 핵심은 내 유전자의 생존이다.
하지만 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들은 모두 미숙아로 태어난다. 아이를 만들고 바로 도망가 새로운 아이들을 만들면 될까. 미숙아로 태어날 아이를 **9** 개월 동안 자신의 배 안에 심고 살아야 할 여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옵션이다.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를 위해 먹이를 구하고 지켜줄 남자가 필요하다. 남자 역시 굶어 죽을 여러 명의 아이를 여러 여자를 통해 가지는 것보다 자신의 유전을 물려받은 소수의 아이들을 굶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 둘 사이의 끝없는 갈등의 결과물이다.
'자기집단중심적 이타주의(parochial altruism)'. 나와 비슷한 유전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것이다. 어머니의 희생, 기러기 아빠의 헌신, 외할머니의 사랑, 고향 사랑, 애국심. 모두 이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동시에 함께 시작된 인간의 추한 모습들: 타인의 아픔이 주는 기쁨, 왕따, 인종차별, 민족주의, 십자군전쟁,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

퀠리아를 가진 동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타인을 경계한다. 침팬지·들개·펭귄들도 보여주는 행동이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동물일 뿐일까. 물론 인간은 동물이다. 하지만 아주 독특한 동물이다. 왜냐고. 인간이 있기에 빨간 장미는 빨갛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은 달콤하기 때문이다. 한번 상상해보자.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빨강을 빨강으로 인식하고, 달콤함을 달콤함으로 느끼는 인간 없이 빨강은 빛의 주파수일 뿐이고, 달콤함은 화학적 반응에 불과하다. 고양이 시각 뇌에 전극을 꼽고 눈앞에 다양한 사물을 보여주면 시각신경세포들의 전기생리적 반응을 관찰할 수 있다.
사람도 비슷하다. 동그라미·빨강·달콤함. 모두 전기생리적 독특한 반응을 보여준다. 하지만 신경세포들의 반응은 신경세포들의 반응일 뿐이다. 인간은 전기생리학적 현상을 넘어 **'퀠리아(qualia)'**를 느낀다. 퀠리아란 무엇인가. 빨간 장미를 지각할 때 느끼는 기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볼 때의 느낌. 바로 이런 것들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주관적인 특징들. 그렇다면 퀠리아는 비과학적인 걸까.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데카르트라는 자아가 본인이 생각한다는 사실을 느끼는 퀠리아가 있기에 가능하다. 돌과 해파리는 퀠리아가 없기에 과학을 만들지 못했지만, 인간은 세상을 지각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기에 과학을 만들 수 있었다.

퀠리아는 과학의 조건이며 논리를 초월한다. 그렇다면 퀠리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제임스 왓슨(James Watson)과 함께 DNA 의 나선형 구조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은 프랜시스 크릭(Francis Crick)은 퀠리아, 그리고 퀠리아들의 합집합인 정신을 아름다운 음악과 비교한 바 있다. 뇌가 오케스트라이고, 바이올린·첼로·피아노 연주자들이 뇌의 다양한 기능들이라고 상상해보자. 지휘자 없이도 연주자들은 가지각색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아름다운 화음은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들을 잘 조합하고 합쳐야만 가능하다. 비슷하게 시각·청각·기억·감성 같은 뇌의 기능들이 정교하게 통합되어야만 '정신'과 '자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뇌의 '지휘자'는 누구일까. 바로 'claustrum'이라는 피각(putamen)과 뇌섬엽(insular cortex) 사이 작은 영역이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 뇌의 거의 모든 영역들과 연결되어 있는 이곳의 전기적 반응을 중단시키면 사람은 마치 로봇이나 좀비가 된 것 같은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몸을 지탱하며 숨 쉬고 눈은 뜨고 있지만, 더 이상 의식적 지각이나 행동이 불가능해진다. 뇌 속의 지휘자 없이 인간은 다시 퀠리아 없는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동물: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이 보인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세포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나는 그들이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내 피부에 가려움은 참기 힘들지만, 1 ㎜도 안 되는 내 피부 바깥에서 죽어 넘어가는 타인의 고통은 나와는 상관없다. 내가 아닌 세상은 나에겐 무의미하고, 무의미한 사람들을 위해 나라는 자아가 희생하고 노력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희생과 노력이 필수인 이타적 행동 없이 인간은 영원히 혼자이기에 다시 동물의 먹이가 된다.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다.
결국 인간의 뇌는 '공감'이라는 킬러 앱(killer app)을 만들어낸다. 타인의 행동을 시뮬레이션하도록 도와주는 '거울 뉴런',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뇌들에게 비슷한 신경회로망을 만들어주는 '결정적 시기', '언어'라는 도구를 통한 지속적인 소통. 이 모두 서로의 퀠리아를 직접 느낄 수 없는 사람들끼리의 공감을 가능하게 해주었기에, 우리는 인식도, 검증도 불가능한 타인의 자아를 믿어준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얼마 전까지 배고프다며 칭얼대던 아이가 조용해졌다. 흔들어도, 꼬집어도 반응이 없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오늘 아침과 여전히 똑같이 생긴 아이.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 더 이상 아무것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일까. 더 이상 퀠리아가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무언가가 퀠리아를 만들어내기도, 그리고 다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라는 가설의 탄생이었다. 몸에서 분리된 영혼은 위험하다. 집과 여자가 없는 이방인이 남의 여자와 집을 넘보듯, 몸이 없는 영혼은 나의 몸을 차지하려고 할 수 있다. 나는 나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그렇다면 영혼이 떠나지 않도록 몸을 보존해 주어야 한다! 이미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영혼을 속여야 한다!
1 만 년 전 레반트(오늘날 이스라엘·레바논·요르단·시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우연한 발견을 한다. 썩어가는 해골에 진흙을 바르고 하얀 조개 껍질로 '눈'을 만들어주자 마치 죽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했다. 육체를 떠나려는 영혼을 이렇게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상상과 예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야기를 통해 현실화하는 문명의 시작점이었다. 오늘날 지구의 주인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들이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먼저 떠난 인류의 친척은 네안데르탈인들이었다. 네안데르탈인들은 단단한 뼈와 현대인들보다도 더 큰 뇌를 가졌었다. 그러나 그들은 멸종했고, 그들보다 더 약하고 더 작은 뇌를 가진 호모 사피엔스는 살아남았다.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하라리(Yuval Harari) 교수는 '픽션을 만들어내는' 호모 사피엔스의 능력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전설과 신화로 만들어진 정체성으로 똘똘 뭉친 100 명, 1000 명의 힘을 모아 네안테르탈 인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이다.

신이 된 동물: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키고, 자신보다 수십 배 더 큰 매머드를 사냥하고, 식물의 성장과정을 제어해 농경사회를 만들어내고,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가축화하고. 인류의 발전은 상상을 초월했다.
불·농사·바퀴·칼·총·돈·인쇄기술·엔진·전기·항생제·인터넷. 언젠가 단 한 사람 머리 안에서 시작된 이 생각들은 세상을 바꾸어 놓았고, 지구는 '안트로포센(anthropocene, 인류세)'이라 불리는 인류 위주의 세상으로 탈바꿈하였다. 맹수의 먹잇감이었던 인간의 두개골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집을 넘어 드디어 다이아몬드 8601 개로 만들어진 초고가 현대 예술작품으로 변신한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는 무엇인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광유전자, 브레인 리딩, 브레인 라이팅, 그리고 인공지능. 땅과 하늘 그리고 식물과 동물의 세상을 장악한 인간은 서서히 우리 자신을 변신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나약한 동물로 시작해 신이 되어가는 우리 인간.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여전히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일까.

– 중앙일보 2015 년 5 월 9 일자 [김대식의 'Big Questions'] 칼럼에서 발췌-

☺불기 2559 년(2015 년) 을미년 봉축 일년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 - St. Lou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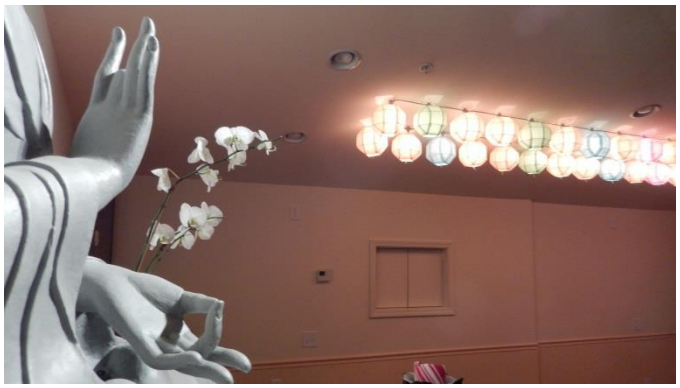
* 세계평화 원만 성취 발원
* Atlanta, Georgia 불사 원만 성취

1. 을해생 무량화 문봉순 : 2. 계묘생 고대만 : 3. 병오생 강희경 : 4. 갑술생 고미성 : 5. 경진생 고명섭 : 6. 병자생 김영대 : 7. 곤명 계사생 김숙향, 차녀 기사생 김정아 : 8. Banya Gregory Kilper Family : 9. Simgong Steve Arnett : 10. 건명 무신생 선법 조승호, 곤명 임자생 차은주, 장남 신묘생 조현준 : 11. 건명 박영찬, 곤명 하재숙 , 장녀 Soomin Park (박수민) : 12. 건명 병오생 도광 이찬혁, 곤명 기유생 이은정, 장녀 정축생 이지민, 차녀 이정민 (Alice Jungmin) : 13. Debra Tak : 14. 청신녀 무진생 최춘자, 건명 갑오생 허정석 (Justin J. Hur), 곤명 기해생 김원미, 장녀 갑자생 허윤정, 차녀 기사생 허정민 : 15. 건명 병자생 한정언, 곤명 경진생 장복도 : 16. 건명 정미생 한영택, 곤명 경술생 이현주, 장녀 병자생 한서경, 장자 기묘생 한주영: 17. 건명 계묘생 김덕호, 곤명 신축생 이병옥, 장남 신미생 김정우, 차남 갑술생 김수우 : 18. 임술생 정도 명 윤 : 19. 장녀 을미생 Tong Stanley, 차녀 을사생 진여심 김수현, 건명 기사생 덕련화 김재수 : 20. 건명 관도 민정기, 곤명 법안심 송혜숙, 장남 계유생 민경문 : 21. 갑오생 배제현, 무술생 최문선, 병인생 배 진, 무진생 배수진, 임신생 배민철 : 22. 건명 을사생 송 보영, 곤명 을사생 강 효정, 장녀 임신생 송 채원, 장남 계유생 송 지환

☺불기 2559 년 (2015 년) 영가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 - St. Louis

1. 망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선각 복위) : 2. 망부 남평후인 문정모 영가 (행효자 문병현 복위) : 3. 망모 이씨 유인 이규영 영가 (행효녀 풍인수 복위) : 4. 망부 김해후인 김헌웅 영가 (행효녀 김정아 복위) : 5. 망조모 밀양유인 손덕연 영가, 망모 진학미 영가 (행효녀 박수민 복위) : 6. 망 부 김씨후인 김일권 영가 (행효녀 Angela Kim 복위)

☺불기 2559 년(2015 년) 을미년 봉축 일년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 - Atlanta



* 세계평화 원만 성취 발원
* Atlanta, Georgia 불사 원만 성취

1. 경자생 상품행 변지연 : 2.곤명 무신생 임선경, 장자 을해생 윤철용, 장녀 정축생 윤혜림 : 3. 건명 임진생 조남국, 곤명 무술생 현심행 김설아, 장남 갑자생 조민우 : 4. 김대성 : 5. 건명 병오생 김기환, 곤명 기유생 윤석찬, 자 경진생 김동준, 청신녀 임오생 인내심 김양한 : 6. 청신녀 기사생 강미자 : 7.신축생 강용택 : 8. 기해생 관음성 강상숙 : 9. 경오생 강정철

: 10. 무인생 강현대 **: 11.** 건명 박정근, 곤명 이호임, 병진생 박지훈, 경신생 김우진, 신유생 박성원, 손자 계사생 박태완, 손자 갑오생 박태율 **: 12.** 건명 을미생 진재열, 곤명 무술생 정병남, 장남 신유생 진창혁, 자부 경신생 김은아 **: 13.** 청신사 사리자 임명환, 청신녀 보리행 서석용, 건명 경술생 발심행 임소영, 장녀 경진생 한도연 **: 14.** 건명 정유생 여해 백승화, 곤명 정유생 공덕심 백귀옥, 장녀 을축생 백민정, 차녀 임신생 백민영 **: 15.** 건명 정유생 윤용덕, 곤명 임인생 법륜화 김인숙, 자 정묘생 윤혜준, 자 경오생 윤일환 **: 16.** 건명 무술생 문홍남 , 곤명 정미생 문평임, 장남 임신생 문성웅, 차남 병자생 문지성 **: 17.** 병신생 법행 **Carl A Graves : 18.** 계묘생 반야심 **Yong H Graves : 19.** 건명 을미생 강태호 , 곤명 경자생 권귀순, 장남 정묘생 강승엽 **: 20.**건명 갑오생 심우 임경호, 곤명 무술생 이명숙 **: 21.** 장남 경오생 임태윤 **: 22. Sweet Baby Jane's; Sweet Baby Jane's** 사업번창 및 전직원 건강 발원 **: 23.**권일연 대표이사 및 한아름 **(H-Mart)** 전직원 건강및 사업번창 발원 **: 24.** 건명 기유생 손종필, 곤명 신해생 연소행 손선영, 장남 신사생 손명정 **: 25.** 이형순 가족 건강 발원 **: 26.** 임진생 **Larry T. Owens : 27.** 갑오생 법계성 **Owens : 28.** 원광 이상연 **: 29.** 건명 계묘생 **James (Pancho) Russell ,** 곤명 신해생 **Li (Lily) Xu : 30.** 건명 정사생 **Lorenzo Hill,** 곤명 무오생 **Erica Hill : 31.** 건명 신해생 **Oaniel Gracia,** 곤명 기미생 **Wina Gracia,** 장남 임오생 **Eric Gracia : 32. Charles Shin : 33. Irena Johnson**

☺불기 2559 년 (2015 년) 영가 연등 기도 동참자 명단 – 애틀랜타 지역

1. 강석주 대종사 선영 영가 (비구니 선각 복위)
2. 망모 경주유인 김남심 영가 (행효자 권일연 복위)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이모 저모

템플스테이,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난다 :문화사업단, 6 월 3 일 유튜브 최초 공개

▲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스님)은 6 월 3 일 템플스테이 브랜드 '아생여당' 런칭 1 주년을 맞아 제작한 아아, 생생, 여여, 당당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템플스테이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난다. 특히 여행문화 템플스테이 콘텐츠인 '아생여당(我生如堂)' 캐릭터가 사찰로 떠나는 하룻밤을 안내하면서 친숙함을 더하고 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스님)은 6 월 3 일 템플스테이 브랜드 '아생여당' 런칭 1 주년을 맞아 제작한 아아, 생생, 여여, 당당 캐릭터와 애니메이션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4 개 캐릭터와 떠나는 템플스테이는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TEMPLESTAYALL)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애니메이션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이 템플스테이 캐릭터들과 함께 13 곳의 '아생여당' 사찰로 떠나는 여정을 그렸다. 캐릭터를 따라가면서 각 사찰의 특성이 담긴 템플스테이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문화사업단 설명이다.
'아생여당'이란 단순한 휴식이나 체험을 벗어난 여행문화로서 템플스테이 새 브랜드다. 아아, 생생, 여여, 당당은 각각 위로, 건강, 비움, 꿈을 상징하며 13 개 사찰은 각 사찰 환경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애니메이션 공개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6 월 8~14 일 '아생여당' 런칭 1 주년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홈페이지(www.templestay.com), 페이스북(www.facebook.com/templestay), 블로그(http://blog.templestay.com) 등 템플스테이 공식 온라인 계정을 통해 애니메이션과 관련한 퀴즈를 공개한다. 세 가지 문항을 모두 맞힐 경우 1 등(2 명)에게 전통문향 수첩, 여행용 폴딩백 등 다양한 불교문화상품으로 구성된 20 만원 상당의 럭키박스가 주어진다. 2 등(8 명)에게는 아생여당 캐릭터 인형과 템플스테이 체험권 1 매가, 3 등(30 명)에게는 여행작가 4 명의 템플스테이 체험이 담긴 아생여당 에세이집과 기념수첩,

캐릭터 볼펜이 증정된다. 향후 문화사업단은 위로, 건강, 비움, 꿈 메시지를 전하는 아생여당 캐릭터로 산사 여행을 독려하는 플랫폼을 확장시킬 계획이다.

법회소식 NEWS

- 나를 만나고, 서로를 알게되는 곳, 그래서 행복해지는 곳, 붓다나라에서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7 주간의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를 실시 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특별 프로그램:
☺1 박 2 일 템플스테이 : 6 월 27 일 -6 월 28 일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공지)

☺ 7 월 25 일 캠프 마지막 날: Six Flags

Youth Dharma Summer Camp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

기간: 2015 년 6 월 13 일부터 7 월 25 일까지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 까지
대상: 6 학년 - 12 학년
내용:
기본 프로그램: 예불, 참선, 다도, 찬불가 배우기
전통 문화와 전통 놀이 체험: 연꽃 및 등 만들기,제기차기, 공기놀이, 팽이 치기등 다수
생활 체험: 요리하기, 사찰예절, 봉사

①참선 과 행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②스님과의 차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수행자인 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차를 나누는 시간
③예불: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며 불성을 일깨우는 시간
④108 배: 아상에 찬 나를 낮추고 불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수행법이며 매 순간마다 무념의 상태에서 불성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
④연꽃과 등 만들기

-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볼런티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실 선생님들과, 뒤에서 후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도하실 선생님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되야 합니다.) 캠프기간중에 봉사하실 선생님들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므로 사찰로 연락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둥입니다. 붓다나라는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아끼지않습니다.
- 세인트루이스와 애틀랜타 지역에서 가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신도님들의 헌신적인 협조덕분에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특히도 애틀랜타지역에서 갖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붓다나라가 창건하고 처음 갖는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도님들이 합심단결하여 멋지게 마무리 했습니다.
영어권에 계신분들을 위해 통역을 담당해준 윤혜림 학생 수고 많이 했습니다. 또한 축하공연을 해준 윤혜림 (피아노-엘리제를 위하여), 손정명 (바이올린- 아리랑 과 태권도 품새 시범), 한도연 (피아노), Eric Gracia (바이올린) 큰 박수를 보냅니다. 맛있는 점심 공양을 준비해 주신 신도님들, 법당과 관불의식을 할 애기 부처님 주변에도 멋지게 꽃으로 장엄을 해주신 현심행 보살님께도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성불합시다.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입니다. 네팔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붓다나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네팔 현지로 전해집니다. 많은 동참기다립니다.

문의 사항은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314)993-0185; 애틀랜타 붓다나라 (770)945-5345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 대중공양그릇, 관불의식대, 파라솔, 그외 여러가지 가든에 필요한 것들:Carl A. Graves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